

◆ 02년 6월 고3 32~36번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리 퍼내도 쌀이 자꾸자꾸 차 오르는 항아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을 것이다. 신화의 세계에는 그런 쌀독이 얼마든지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신화(神話)를 들추어 보아도 이런 항아리가 등장하지 않는 신화는 없다. \ ㉠ / 신화에는 사람들의 원망(願望)이 ㉡투사(投射)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담에도 그런 항아리가 등장한다. 아무리 꺼내도 자꾸자꾸 먹을 것이 차오르는 ‘화수분 단지’가 바로 그런 기적의 항아리이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쌀을 갈아 대는 ‘혼자 도는 맷돌’도 그런 기적의 맷돌이다.

(나) 신화란 신(神)이나 신 같은 존재에 대한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야기, 우주나 민족의 시작에 대한 초인적(超人的)인 내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창작(創作)되거나 전해지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신화는 상상력에 바탕한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이해이다. \ ㉣ / 이처럼 신화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얻은 것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생산력으

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를 보면 신화의 창조란 바로 '혼돈과 무질서'에서 '정돈과 질서'를 찾는 과정이다. 신화 창조를 통해 우주 만물은 혼돈에서 정돈되고,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삶이 영위(營爲)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신화는 단순한 상상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상상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상상력은 또 생산적 창조력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 인류의 삶을 풍족하게 만든 모든 문명의 이기(利器)들은, 그것의 근본을 ㉠규명(糾明)해 보면 신화적 상상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 ㉡ / 결국, 그것들은 인류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 신화를 현실화한 것이다. 또한 신화는 고대인들의 우주 만물에 대한 이해로 끝나지 않고 현재 까지도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고, 나아가 신화 자체가 문학적 상상력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라) 신화적 사유(思惟)의 근간은 환상성(幻想性)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현실성을 무시한 황당무계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 / 그러나 이 환상성은 곧 상상력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풍부한 신화적 유산을 ㉣계승(繼承)한 민족이 찬란한 문화를 이룬 예를 서양에서는 그리스,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규모는 작지만 단군(檀君)·주몽(朱蒙)·박혁거세(朴赫居世) 신화 등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 역시 오늘날 이 작은 한반도에서 나뉠대로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이야기, 곧 신화가 그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마) 신화는 물론 인류의 보편적 속성에 기반하여 ㉤형성(形成)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민족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즉, 나라마다 각각 다른 지리·기후·풍습 등의 특성이 반영되어 각 민족 특유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 /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중국의 신화는 신화적 발상과 사유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은 침범 불가능한 아폴론 신의 영역이지만 중국 신화에서는 후예(后羿)가 태양을 쏜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떨어뜨려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3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신화가 지향하는 세계는 정돈과 질서의 세계이다.
- ② 신화는 상상력에 바탕한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이해이다.
- ③ 풍부한 신화적 유산이 훌륭한 문화 창조의 기반이 된 경우가 많다.
- ④ 신화에는 인류의 보편적 속성뿐만 아니라 개별 민족의 특성도 반영된다.
- ⑤ 신화는 과거에는 문학적 상상력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우주 만물 이해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다.

33. 각 문단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신화를 인간의 소망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 ② (나) - 신화의 개념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③ (다) - 신화적 상상력이 갖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환상성'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다.
- ⑤ (마) - 신화가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34. <보기>가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 <보기> —

오늘날 인류 최고의 교통 수단이 되고 있는 비행기도 우주와 창공을 마음껏 날아보려는 신화적 사유의 소산이며, 바다를 마음대로 항해해 보고자 했던 인간의 신화적 사유가 만들어낸 것이 여객선이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장자(莊子)』에 나오는, 물길을 차고 높이 날아올라 순식간에 먼 거리를 이동한 곤봉(鯤鵬)의 신화가 오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5. ㉠~㉥을 바꾸어 쓴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점]

- ① ㉠ 투사(投射)되어 → 던져어져
- ② ㉡ 창작(創作)되거나 → 만들어지거나
- ③ ㉢ 규명(糾明)해 보면 → 캐 보면
- ④ ㉣ 계승(繼承)한 → 물려받은
- ⑤ ㉤ 형성(形成)되고 → 이루어지고

36. <보기>가 타당성을 갖는 근거가 되기에 적절한 문단은?

— <보기> —

지난 계축년(1193) 4월에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얻어 동명왕 「본기(本紀)」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했었다. 세 번 거꾸 탐독하고 음미하여 차츰 그 근원에 이르고 보니, 환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중략) 더구나 동명왕의 일은 신이한 변화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라를 새로 세운 신기한 사적이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장차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를 지어 남겨서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이규보, 『동명왕편(東明王篇)』 서(序)에서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Historiai)』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後世人)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 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④ 앞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수사학의 범위 안에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
- ②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였다.
- ③ 역사의 어원이 되는 ‘histor’라는 단어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지칭할 때 쓰였다.

- ④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라고 인식한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기대했기 때문이다.
- ⑤ 『역사』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찾았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필라르코스는 자신이 쓴 역사서에서 독자들의 동정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끌 만한 장면들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역사가는 그런 과장된 묘사로 독자를 감동시키려고 애쓰면 안 된다. 또 비극 작가들처럼 등장인물들이 했을 법한 말을 상상하여 서술해서도 안 된다.
- 폴리비오스, 『세계사』 -

(나) 역사가는 무엇보다 거울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거울은 맑고 밝게 빛나며 왜곡이나 채색함이 없이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역사가가 말하는 것, 즉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인 까닭이다.
- 루키아노스, 『역사에 대하여』 -

(다) 과거사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미래의 일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 책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 ① (가)의 ‘필라르코스’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보아야겠군.
- ② (나)는 역사가의 덕목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거울’로 표상하고 있군.
- ③ (다)의 투키디데스는 순환 사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저작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있군.
- ④ (가), (나)는 모두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군.
- ⑤ (가), (다)는 모두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보다 설득력을 중시하고 있군.

21. ㉠의 입장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전에만 의거해 서술했으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신화와 전설 등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
- ③ 트로이 전쟁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④ 신화적 세계관에 따른 서술로 인해 과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
- ⑤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은 찾을 수 없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와 같은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용언의 경우, 합성어 내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목적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멍들다 ② 빛내다 ③ 힘쓰다
④ 그늘지다 ⑤ 남다르다

◆ 08 MDEET 언어추론 23~25번

[23~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사를 인간의 과거에 대한 기억 혹은 이야기라고 폭넓게 정의하면, 그런 의미에서의 역사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이전에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트로이 전쟁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다룬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역사'라는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시인은 문자 이전의 사회에서 축적된 집단 기억의 신화적 표상, 즉 신으로부터의 영감에 '사로잡혀' 노래하기 때문이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시인 호메로스는 단지 뮤즈 여신들과 아폴론이 준 영감, 즉 기억의 중계자일 따름이다.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출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그 '신들린 상태', 즉 집단 기억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그 결정적 계기는 이질적인 문화권과의 접촉이다. 그 결과 비로소 자기가 속한 집단이 지닌 기억 혹은 세계관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수정하는 개인이 나타난다. 이 바탕 위에서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서술되었다. 역사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historia*의 의미가 '목격자의 증언'에서 '탐구'로 변하게 되는 것도 이 즈음이다. 『역사』는 헤로도토스의 동시대인이 경험한 최대의 사건, 즉 페르시아 전쟁과 그 전쟁의 원인을 탐구하여 기록하였다. 그 점에서 헤로도토스는 역시 전쟁을 주제로 삼은 호메로스와 거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호메로스가 집단 기억의 구전으로 남았을 뿐 더 이상 탐구의 여지가 없는 아득한 과거의 일을 소재로 삼았다면, 헤로도토스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기록과 증언을 수집하여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시기의 사건을 다루었다. 9권으로 된 『역사』를 서술하면서 헤로도토스는 1~4권은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5~9권은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는 데 할당한다.

헤로도토스는 서술을 위해 기록과 증언을 가리지 않고 수집하였고, 그 중 일부는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경우 기록과 증언을 불신하거나 비판하기보다 그대로 열거하며 소개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후세의 역사가들은 『역사』의 서술이 잦은 방담으로 교란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1~4권의 서술에서 작가는 그리스 이외의 세계를 다루며 부단히 풍토와 풍습, 지리, 전설 등을 거론한다. 이런 특성이 나타난 이유는 구체적 정보를 분석하고 추상하는 사유가 미숙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청중을 모아 놓고 작품을 구연하던 당시의 관행 탓이기도 했다. 그는 청중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다양한 소재들을 제공해야 했던 것이다.

한편, 헤로도토스의 뒤를 잇는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후대인들에게 '모범적인 역사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투키디데스 역시 자신의 세대가 겪은 사건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주제로 글을 썼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지리적 정보나 각 민족의 풍속 등에 대한 서술로 종종 논점이 분산되던 헤로도토스와 달리, 그는 정치사와 전쟁사에 오롯이 집중했다. 이는 작품 구성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8권 분량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직접 설명에 제1권을 할애할 뿐, 나머지는 전쟁 자체만을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개인적,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구연물이 아닌 독서물로 글을 썼으며, 청중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서술 방법론의 측면에서 그는 자신이 얻은 기록과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만을 정보로 간주하고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증언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리고 얻은 정보들을 자신의 역사 인식과 경험에 의거하여 선별하고, 상충하는 정보들 가운데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을 독자에게 제공했다. 즉 그는 과거사(過去事)와 그에 대한 정보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경우 자신의 인식으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책의 서문과 첫머리에서만 잠시 1인칭으로 등장할 뿐, 그 후로는 텍스트 사이로 모습을 감춘다. 다시 말하면 화자는 텍스트 자체가 된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동기를 분석하고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사건을 생생하게 서술하였다. 그 박진감의 효과 때문에 독자는 객관적인 관찰자로 보이는 화자의 권위에 동의하게 되고, 차츰 그 동의는 습성화된다.

이후의 역사학은 헤로도토스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보이며 논점이 집중되어 있는 투키디데스의 서술 방법론을 본받았다. 투키디데스에 대한 후세 역사가들의 호의는 ㉠ “헤로도토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투키디데스를 그리스 최초의 역사가라 부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라는 베르낭의 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23.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엄밀한 의미의 역사’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서술자의 주관과 경험을 배제한다.
- ② *historia*의 의미가 변화해 간 것은 현장 확인 및 증언 수집과 관련이 있다.
- ③ 역사 서술 주체로서의 개인은 다른 문화권의 존재를 인식할 때 나타난다.
- ④ 호메로스 서사시는 공유된 집단 기억의 신화적 표상에 근거하고 있다.
- ⑤ 집단 기억의 서술로서의 서사시는 넓은 의미에서 역사라고 부를 수 있다.

24. ㉠에서 ‘유혹’을 느끼는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목격자의 증언 수집	㉡. 작품 내용의 집중성
㉢. 정보의 비판적 제어	㉣. 당대사 서술의 창안
㉤. 명료한 분석적 서술	

- ① ㉠, ㉢ ② ㉡, ㉣ ③ ㉠, ㉡, ㉣
- ④ ㉡, ㉢, ㉤ ⑤ ㉢, ㉣, ㉤

25. <보기>는 두 역사가의 작품 기획 의도이다. 위 글의 내용과 연관시켜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할리카르나소스의 헤로도토스가 탐구한 바를 보여 준다. 일어난 일이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뇌리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스인과 이민족이 보여 준 위대하고 경이로운 행적이 그 영광을 잃지 않도록, 특히 그들이 서로 싸운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 헤로도토스 -

아마 독자들은 전설을 이야기하지 않는 내 작품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므로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작품이 유익하다고 여길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내 역사는 한 번의 구연물이 아니라 영대(永代)의 재산이다.

- 투키디데스 -

- ①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작품의 많은 분량을 배경과 원인 설명에 사용했다.
- ② 헤로도토스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사한 것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③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작품을 읽는 독자층을 정치적, 군사적 사건에 대해 교훈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상정했다.
- ④ 투키디데스는 ‘전설’이나 ‘구연물’이라는 말로 헤로도토스의 작품을 암시하며 자신의 작품이 그보다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 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모두 역사가 유사하게 되풀이되므로 중요한 사건은 탐구해서 남겨 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 14년 11월 고1 16~19번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가 삶을 가르치고 삶을 규정하는 조건이라면, 삶이 역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가질 때 역사의 올바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일까? 역사는 삶에 ㉠ 기여해야 한다. 삶이 역사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기념비적 역사', '골동품적 역사', '비판적 역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기념비적 역사는 과거의 위대함에 대한 회상을 통해 새로운 위대함의 가능성을 ㉡ 촉진하는 역사이다. 이는 '인간'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고 아름답게 성취하게 하여 인간 현존의 모습을 보다 차원 높게 만든다. 그러나 기념비적 역사를 통해 과거의 위대함이 우상 숭배적으로 찬양되어 생성과 변화가 무시된다면, 역사적 상황이나 시대적 필요와 아무 관련이 없는 특정한 위대함에 대한 광신주의가 탄생할 것이다. 과거에 대한 일방적 의미 규정, 특정한 역사적 위대함에 대한 숭배와 모방의 강요는 기념비적 역사가 지닌 위험이다.

㉡ 골동품적 역사는 오래된 과거를 찾아 보존하면서 ㉢ 전승하는 역사이다. 여기에서는 실증적 사실의 확인은 중요하지 않다. 골동품적 역사는 전통과 매개되어, 인간은 이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유래를 알고 자신을 이해하며 더욱 확장하게 된다. 비범한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기념비적 역사와는 달리 골동품적 역사는 일상적 습관과 관습을 규정하고 보존하며, 민족의 역사적 고유성 속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를 결합시키는 귀속성의 감정을 만들어 낸다. 이는 골동품적 역사를 통해 현재의 인간이 전통과 유래를 인식함으로써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동품적 역사는 과거에 대한 미라(mirra)적 숭배로 미래적 삶에 대한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것은 굳은 관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즉 골동품적 역사는 삶을 단지 보존할 줄만 알 뿐 생산할 줄은 모르게 되는 것이다.

㉔ 비판적 역사는 과거를 숭상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부정하기 위한 역사이다. 비판적 역사의 유용성은 과거의 절대화와 고착화에 ㉓ 대항하여 삶을 과거의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데 있다. 역사적 전통은 인간에 의해 창출된 것이므로 그 안에는 판결 받아야 할 정치적 특권, 지배적 관습 등이 존재한다. 비판적 역사는 이들을 폭로하고 파괴한다. 이때 판결 기준은 절대적이고 선형적인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에 따른 삶 자체이다. 비판적 역사는 보존되고 전승된 과거와 투쟁을 벌여 새로운 관습과 본능을 창안하고자 한다. 인간은 비판적 역사를 통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과거를 만들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비판적 역사 역시 위협성을 가지고 있다. 억압과 지배로부터 해방의 의지를 품었으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위한 과거 부정의 척도를 세울 수 없는 비판적 역사가는 단지 과거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은 기념비적, 골동품적, 비판적 관점에서 과거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㉔ 유용한 것으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1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를 관점에 따라 유형화 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를 다룬 두 이론의 차이를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정의하며 이론을 소개하고 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7.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과거의 비범한 대상에 주목한다.
- ② ㉒은 민족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 ③ ㉑, ㉔은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형성하고자 한다.
- ④ ㉑과 달리 ㉒, ㉔은 실제적 검증 과정을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한다.
- ⑤ ㉔과 달리 ㉑, ㉒은 과거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가) 조선 시대의 관습이었던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지닌 모순을 밝힘으로써 남녀평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가족 제도를 제시하였다.
- (나) 이순신 장군을 국가를 구한 영웅으로 높이 평가하여 동상을 세우고 특정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 (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과거의 정치 공동체로 알려진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단군을 우리의 시조로 만들어 우리 스스로를 단군의 자손으로 설정했다.

- ① (가)에서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절대적인 정의에 근거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제시한 새로운 가족 제도는 과거에 대한 부정을 통해 창안한 새로운 관습으로 볼 수 있군.
- ③ (나)는 이순신의 위대함을 기리고 보존함으로써 인간 현존의 모습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단군을 시조로 만들 때, 단군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겠군.
- ⑤ (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군의 자손임을 인식하게 하여 한 민족으로서의 귀속성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겠군.

19. ㉓~㉔를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 이바지해야
- ② ㉔: 나타내는
- ③ ㉑: 이어 가는
- ④ ㉒: 맞서
- ⑤ ㉔: 쓸모 있는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에는 방송이나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비전문가들이 쏟아 내는 현대사 연구물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중에게 현대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역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실에 입각해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에 충실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해결하고 올바른 현대사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수집한 문헌 자료에 대해 ㉠철저한 사실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연구들은 대중들의 기호나 연구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택된 자료들이 자의적으로 활용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루고자 하는 현대사 분야와 관련하여 자신이 수집하고 검토한 문헌 자료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자료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한 현대사 연구는 대중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건을 바라보는 광각적 시야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비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현대사 연구를 보면 역사적 사건을 특정한 시각에서 지역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대사 연구는 어느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사의 영역에 속하는 종합적인 분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국한된 사건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그것을 포괄하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는 ㉢구술사(口述史)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다. 현대사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 문헌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구술사를 활용함으로써 진실에 더욱 접근하기 쉬운 때가 있다. 이런 이유로 현대사의 많은 부분들이 참여자의 경험담, 목격자의 증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속 보완되고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들에게 구술사는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를 보완하여 비전문가들도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채록하고 연구에 활용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들이 이어질 때 더욱 올바른 현대사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18. 윗글에 나타난 현대사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대사 연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 ② 비전문가들의 현대사 연구는 전문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 ③ 현대사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④ 비전문가들의 현대사 연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의 공정성을 철저히 검증 받고 있다.
- ⑤ 구술사는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협조가 부족하여 이를 현대사 연구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9. 윗글의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대중이 바라는 현대사 연구의 주요 방향
- ② 현대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
- ③ 매체의 발달이 가져온 현대사 연구 분야의 성과
- ④ 현대사 연구의 발전을 위한 통시적 관점의 필요성
- ⑤ 비전문가들이 현대사를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점

20.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6·25 전쟁에 대한 역사 서술

(가)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말하는 전쟁 경험의 증언과 진술을 확보하여 그들이 경험한 전쟁 상황을 기록하고 연구에 활용한다.

(나) 전쟁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되 활용의 자의성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후 이를 반영한다.

(다) 전쟁 발발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 위해 남북의 정치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되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함께 파악한다.

- | | | | |
|---|-----|-----|-----|
| | ㉠ | ㉡ | ㉢ |
| ① | (가) | (나) | (다) |
| ② | (가) | (다) | (나) |
| ③ | (나) | (가) | (다) |
| ④ | (나) | (다) | (가) |
| ⑤ | (다) | (나) | (가) |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사료의 불완전성은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그 불완전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된다.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유물, 그림, 구전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 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시각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일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 나타났다.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다. 반면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띤다.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닳은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하여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춰지게 된다.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 이룬다.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연관된다.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일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 펼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가는 ㉦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역사가는 ㉧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지어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언어, 물질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작가의 의도와 상관 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한다. 역사가가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이다.

[A]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 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묻혀 있던 목소리를 표현해 낸다.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한 주체가 된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의 개념을 밝히면서 영화와 역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혀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하여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 서술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영화가 역사 서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 ③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지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강하다.
- ⑤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지 대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호이다.

23. ㉠, ㉡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조선 후기 유행했던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하여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들에서 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공통된 요소를 분석했다.

㉣. 17세기의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집의 여러 곳에서 문장을 차용했다.

- | | ㉠ | ㉡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24. ㉠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②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 ③ 영화가 늘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공식 역사의 입장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 ④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는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둔 영화는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일 뿐이다.
- ⑤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82년 작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다. 당시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한 역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했다. 1993년,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다.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임이 드러난다. 전자는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했다. 반면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을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

- ①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하는군.
- ②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을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군.
- ③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제작됐지만, 그 속에도 역사에 대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겠군.
- ④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역사적 고증에 바탕을 두고 당시 사건과 생활상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개인적 역사 서술 방식에 가깝겠군.
- ⑤ 역사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군.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면(對面)할
- ② ㉡: 간주(看做)되었던
- ③ ㉢: 대두(擡頭)했다
- ④ ㉣: 결합(結合)한다
- ⑤ ㉤: 전개(展開)하기

◆ 14년 4월 고3 B형 19~21번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개체적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역사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파악된 과거의 사실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사가의 역사 연구 태도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A] 랑케는 역사적 사실을 ‘신(神)의 손가락’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계의 사물과 동일시했다. 그는 각 시대나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의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역사가가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신성한 역사를 오염시키는 것이라 여기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역사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확인을 통해 역사를 인식해야 하며, 목적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드로이젠은 역사적 사실이란 어디까지나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학문적으로 구성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단순히 과거 사건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으며,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하나의 지식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사료 고증만으로는 과거에 대한 부분적이고 불확실한 설명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드로이젠이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역사가가 임의로 과거의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역사가가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 가운데 일부를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하기 이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범주’로서의 ‘역사’가 있다고 보았다. 즉 범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선형적으로 규정한다고 본 것이다. 이때, 역사인식의 범주를 형성하는 것은 ‘인륜적 세계’이다. 인간은 태초부터 주어진 자연의 세계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인륜적 세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역사는 이와 같은 인륜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며 또한 그것과의 연관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드로이젠은 랑케의 객관적 역사인식과 달리 역사인식의 주관성을 주장하면서도, 선형적으로 주어진 인륜적 세계가 역사가의 역사인식과 해석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주관주의적 역사인식론은 결코 상대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다.

* 범주: 사물의 개념을 분류할 때 그 이상 일반화할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최고의 유개념(類概念).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랑케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파악을 강조하였다.
- ② 랑케는 과거 사건들의 고유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드로이젠은 인륜적 세계와 자연 세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 ④ 드로이젠은 사료 고증만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다.
- ⑤ 드로이젠은 범주로서의 역사가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선형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20. [A]에 나타난 ‘랑케’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나라의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변 국가의 어휘들을 어휘군별로 분류하였다.
- ② 고려시대 귀족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리들의 장신구와 생활 용품 등을 수집하였다.
- ③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학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영토 경계를 나타내는 비석의 문구를 채록하였다.
- ④ 과거에 일시 편입시킨 영토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주장하기 위해 러일전쟁 전후에 체결된 국제 조약 자료를 선별하였다.
- ⑤ 조선시대 농민 계층의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 임진왜란 전후의 토지 제도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를 정리하였다.

21. 윗글의 ‘드로이젠’과 <보기>의 ‘신사학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미국의 신사학파는 역사적 사실의 존재 방식은 영원한 실재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이며, 모든 역사는 자신의 관심과 자기 시대의 관점에 따라 과거 사실들을 해명한다고 보았다. 즉 그들은 역사 서술의 출발점을 역사가의 현재 인식이라고 보았다.

- ① ‘드로이젠’은 ‘신사학과’와 달리 역사가의 주관적 역사인식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군.
- ② ‘신사학과’는 ‘드로이젠’과 달리 역사가의 역사인식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군.
- ③ ‘신사학과’는 ‘드로이젠’과 달리 불변하는 현실이 역사인식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군.
- ④ ‘드로이젠’과 ‘신사학과’는 모두 인륜적 세계를 상정하여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설명하고 있군.
- ⑤ ‘드로이젠’과 ‘신사학과’는 모두 역사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역사적 사실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은 신화적 관점이나 중세 시대의 종교적 관점으로 역사를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을 배격했다. 이들은 이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고, 이러한 입장은 계몽주의자인 볼테르에 의해 ㉠ 확립되었다.

볼테르는 역사의 동인을 신으로 보았던 중세 시대의 관점을 비판하고, 이성에 의해 역사가 변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성과 자연, 이성과 종교·정치·사회 등의 제도가 상호 작용하면서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역사의 발전은 이성 그 자체가 발전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성의 발전사인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문화는 예술, 법, 정치, 지식, 과학, 풍속, 습관, 음식, 기술, 오락 등 인간 생활과 관련된 것들로 이성의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문화에 대한 이러한 입장에서 문화를 역사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이성의 발전을 드러내려고 했다.

볼테르는 모든 시대와 민족을 ㉡ 포괄하는 방대한 문화사를 서술했다. 이를 통해 이성이 모든 시대의 역사나 모든 민족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전 요소이며, 역사는 이성의 발전 과정임을 드러내려 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사료를 선택할 때는 이성의 업적을 보여 줄 수 있으면서 가장 확실한 기록에 기초를 둔 역사적 사실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역사를 서술할 때는 정치를 역사의 중심에 놓고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 탈피하여, 예술이나 법과 같은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삼아 기술하는 화제 중심 체제의 방식을 사용했다.

역사가 이성의 발전 과정임을 드러내려는 볼테르의 의도는 이성의 발달에 따라 역사의 시대를 헬레니즘 문명의 알렉산드로스 시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대, 르네상스의 메디치가 시대,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로 구분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각 시대는 이성의 성숙과 완성 정도가 달랐다. 한 시대에 이룩된 문화의 성숙은 전승, 누적, 융합되어서 더 발전되고 성숙된 문화를 만들어 가며, 이는 다시 다음 시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루이 14세 시대는 메디치가 시대의 문화가 프랑스에 전승, 누적, 융합되어 성숙 및 발전을 이룬 것이었다. 그에게 루이 14세 시대는 이성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시대였다.

역사와 역사 서술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은 역사는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직선적 역사 발전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이성을 역사의 동인으로 보고 이성을 척도로 사료를 선택하고 문화사를 서술한 것에서, 세계 전체의 역사가 진전되어 가는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척도에 따라 각 시대를 평가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헤르더는 계몽사상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인식했다. 그는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역사의 나선형적 발전을 주장하면서 볼테르의 입장과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역사 철학을 전개해 나갔다.

헤르더가 주장한 개체성은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그에게 개체성은 민족의 개체성을 의미했다. 개체성은 기후와 풍토 및 관습 등에 근거해서 여러

지역의 인간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각 민족에게서 다양하게 형성된 것이며 각 민족의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민족이 추구하는 목표, 생활하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체성의 입장에서 그는 각 민족이 나름의 독특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여러 민족들 각각의 역사적 시대는 모든 민족의 역사 속 하나의 개체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각 민족의 역사적 시대는 고유한 위상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그 시대는 존중받아야 했다.

헤르더는 민족의 개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민족의 시대와 역사, 민족이 처한 환경적 조건 속으로 ㉣ 침투해서 이것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체성에 대한 그의 관점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방법에 따르면, 보편주의적인 관점으로는 역사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볼테르처럼 이성이라는 보편적 척도에 맞지 않는 역사적 사건들을 무시하고 중세 시대를 역사 서술에서 제외해서 로마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지게 하는 일은, 헤르더의 역사 설명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헤르더는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역사가 연속적 성격을 가지면서 나선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역사 서술에서 중세 시대를 제외한 볼테르의 입장과 달리, 헤르더는 중세를 계몽사상 시대의 도래를 위한 준비기였고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로 이해했다. 그리고 역사가 나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그의 주장은 역사가 성장과 파괴, 건설의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볼테르의 직선적 역사 발전관과 다른 것이었다.

헤르더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의 파악과 역사 서술의 기본 단위는 민족이며 역사는 민족의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헤르더는 문화적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사상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서술되어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시대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응되는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의 논쟁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사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나)는 특정 사상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1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볼테르는 이성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볼테르는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역사를 서술했다.
- ③ 헤르더는 중세 시기가 없으면 근대 시기가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았다.
- ④ 헤르더는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을 수용하여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펼쳤다.
- ⑤ 헤르더는 특정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에 대한 선입관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14. '볼테르의 직선적 역사 발전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성이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 ② 인류 전체의 역사가 후퇴와 단절 속에서도 연속하여 진전되는 것이다.
- ③ 역사가 발전하는 원인은 신의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 ④ 역사 서술의 발전은 역사를 신화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 ⑤ 전 세계의 문화사를 서술하여 역사에서 이성이 변화하지 않고 정체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15. 윗글의 '볼테르'와 '헤르더'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볼테르는 4개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보다 문화가 더 완성에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 ② 헤르더는 서로 다른 민족 문화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는 특정 기준은 없다고 보았다.
- ③ 헤르더는 각 민족의 문화는 자신이 처한 기후와 풍토에 따라 동일하지 않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 ④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 문화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⑤ 볼테르에게 이성의 활동은 문화를 통해 드러나고, 헤르더에게 개체성은 각 민족의 문화에서 드러난다.

16.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한편,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해 주었던 알렉산드로스의 사후,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서지중해 일대를 장악한 로마에 의해 멸망되었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유능한 다섯 황제까지 약 200년간을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불렀다. 광대한 제국이 된 로마는 법률, 건축, 토목과 같은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특히 법률이 발달하였다. 로마는 2세기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몰락했다. 이후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다.

- ① 볼테르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에서 발달한 법은 이성의 발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료이겠군.
- ② 헤르더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가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한 것은 각 민족의 개체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 시대에서 아우구스투스 시대로 변화된 것은 역사의 발전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로마에 의해 멸망된 것은 문화의 퇴보와 파괴가 나타나는 역사적 과정이겠군.
- ⑤ 볼테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세 시대는 역사 서술의 대상이 아니고, 헤르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역사 서술의 대상이겠군.

17. 문맥상 ㉠ ~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바로잡혔다
- ② ㉡: 벌여 놓는
- ③ ㉢: 물러나
- ④ ㉣: 돌아가서
- ⑤ ㉤: 이바지했다고

20. 가 ?

21. ? [1]

가
가
가

22. _____ ?

가	100
	
	
	
	

23. ㉠ ?

(整頓)	(整備)
(精製)	(整理)
(定着)	

24. 가 ?

가 (聖母) 가

가 (價値財)

1930 40

3

◆ 13년 3월 고1 24~26번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퍼져 나온 단일 민족일까? 고대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는 수 없이 많다. 또 거란, 몽골, 일본, 만주족 등의 대대적인 외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고조선의 건국 시조로서의 단군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 한 민족 전체의 공통 조상으로서의 단군을 받드는 것은 옳지 않다. 각 성씨의 족보를 보더라도 자기 조상이 중국으로부터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귀화 성씨가 적지 않다. 또 한국의 토착 성씨인 김 씨나 박 씨를 보더라도 그 시조는 앞에서 태어났지 단군의 후손임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족보가 처음 편찬된 조선 중기나 후기까지는 적어도 '단군'이라는 공통의 조상을 모신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 엄격한 신분제가 유지된 전통 사회에서 천민과 지배층이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의식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뻗어 나온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처음 출현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무리 올려 잡아도 구한말(舊韓末)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이런 의식이 전 국민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일 것이다.

제국주의의 침탈과 분단을 겪은 20세기에 단일 민족 의식은 민족의 단결을 고취하고, 신분 의식 타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아직도 단일 민족을 내세우는 것의 순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특히 이주노동자들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조선족 동포들의 처지를 보면, 그리고 출신에 따라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지역 감정을 떠올리면 같은 민족끼리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겨레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단일 민족임을 외쳐 왔지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더 악화돼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유감스럽게도 다른 민족이라면 차별해도 괜찮다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를 강하게 내세운 나치 독일은 600여 만 명의 유대인 학살과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나아갔다. 물론 이런 가능성들이 늘 현재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일 민족의식 속에는 분명 억압과 차별과 불관용이 숨어 있다.

24. 윗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군은 고조선의 건국 시조이다.
- ② 나치의 민족주의에는 유대인에 대한 억압이 숨어 있다.
- ③ 단일 민족 의식은 신분 의식을 타파하는 데 가치가 있다.
- ④ 민족의 단결 의식을 고취하는 데 단일 민족 의식은 유용하다.
- ⑤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5.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일 민족 의식은 구한말부터 생겼기 때문에
- ② 조선족은 동포인데도 국내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 ③ 토착 성씨들도 단군의 조상임을 표방하지 않기 때문에
- ④ 자기 조상이 중국으로부터 도래했다는 성씨가 많기 때문에
- ⑤ 조선 사회에서 천민과 지배층이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대상들의 동일성을 추구해 왔다. 그 동일성을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인간, 동물, 생물, 여성, 남성, 백인, 흑인 등과 같이 다양한 개체들을 분류하고 규정하는 개념들이다.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개체들이 가진 복잡성과 차이는 없어지고 획일화된다. 반면에 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대상과는 차별화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

- ① '우리', '한겨레' 등도 다양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규정하는 말이 되겠군.
- ② '민족의식'이라는 것도 이성의 작용으로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나치 독일'이 '하나의 민족'을 내세운 것은 그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효과가 있겠군.
- ④ '독일인'과 '유대인'이라는 분류는 독일인과 유대인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겠군.
- ⑤ 각각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포'라고 부르는 것은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 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계몽 운동기에 들어서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박은식, 신채호 등 개화기 지식인들이 ‘민족정신’에 눈뜨면서 재발견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은 이제 ‘충군’이 아닌 ‘애국’을 ㉥ 지상 과제로 삼는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16.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역사는 익명의 대중이 이끄는 것이다.
- ② 역사는 현재의 세계를 목적으로 하여 진보해 온 과정이다.
- ③ 역사는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역사는 우연의 지배를 받으므로 필연적인 인과 관계로 파악되지 않는다.
- ⑤ 역사는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체계화된 지적 구성물이다.

17.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마을에 있는 효자비를 재정비하여 효행을 선양한다.
- ② 국민에게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을 지폐 도안에 활용한다.
- ③ 역사 소설을 읽고 실재한 사실과 문학적 허구를 가려 본다.
- ④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하여 고유의 문화를 보존한다.
- ⑤ 전쟁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 국난 극복의 역사를 널리 알린다.

18. <보기>는 역사 동아리 학생들이 위 글을 읽은 후 토론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영웅에 대한 각 시대의 평가는 곧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야.

㉧. 영웅을 만들어 유포하는 체제는 결코 좋은 체제가 아닌 것 같아.

㉨. 근대 국가의 집단 정체성 형성에 애국적 영웅이 중요한 역할을 했군.

㉩. 영웅의 고난과 승리는 대중에게 강력한 정서적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 ① ㉦, ㉧ ② ㉧, ㉨ ③ ㉦, ㉧, ㉨
- ④ ㉦, ㉨, ㉩ ⑤ ㉧, ㉨, ㉩

19.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함.
- ② ㉡: 본을 받을 만한 대상.
- ③ ㉢: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
- ④ ㉣: 사물의 겉과 속 또는 안과 밖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⑤ ㉥: 가장 높은 위.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국주의는 식민지의 영토만이 아니라 서구 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들을 통해 식민지의 문화와 정신까지 수탈했다. 그 이데올로기들은 식민 지배의 과정에서 ‘과학적인’ 지식의 형태로 전파되었다. 역사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근대 역사학’ 또한 식민 지배 정당화의 도구 역할을 하였다. 근대 역사학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생산된 담론들을 식민지의 근대적 교육 기관을 통해 유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의 역사를 구성하여 역사에 관한 식민지인의 사유 방식까지 지배했다.

하지만 제국주의가 남긴 정신적 상흔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결과, 이제 서구의 역사 역시 세계사의 ‘중심’이 아니라,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비서구 문명도 서구 문명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서구 문명의 여러 요소는 오히려 비서구 지역에서 전파되었다는 점 등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로써 서구 중심주의가 근본적으로 극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명 담론에 대해, 그리고 그 담론에 수반하는 ‘근대성’과 ‘진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유 방식에 대해 근원적 재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근대 역사학의 핵심에는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이 깔려 있다. 역사주의의 핵심은 ‘진보’라는 개념, 그리고 진보의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즉 역사는 시간과 함께 진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주의적 사유에 따르면, 시간은 늘 역사적 진보로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질적이고 비어 있는 시간’이다. 그리하여 근대 역사학은 ‘공간의 시간화’ 전략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동질적인 시간상의 위치 측정 기술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전’의 시간(전근대)과 ‘지금’의 시간(근대)을 ‘진보’라는 개념으로 연속시키면서 각각의 시간에 비서구의 역사와 서구의 역사를 배치했다. 즉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를 문명 상태로 전환할 사명을 가진다는 제국주의의 ‘문명화 사명’ 주장의 바탕에는 서구와 비서구 모두 단선적 시간 위에서 동일한 역사적 진보 과정을 밟는다는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시간의 이 위계적 구조로 인해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서만 아니라, 각 국가와 사회 내부에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회 집단들 간에 ‘발전의 불균등’이 재생산되었다. 즉 한 사회 내부에서도 이른바 근대적인 발전에 뒤쳐져 있다고 규정된 집단 - 예를 들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농민 - 은 여전히 전근대를 살아가는 후진적 존재로 간주되면서 주변화되고 배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근대적인 시간 안으로 편입될 것을 강제당해 왔던 것이다.

그러면 서구 중심주의적 근대 역사학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단순히 비서구적 공간도 문화적 고유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서구와 동일한 역사적 진보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상이하고 이질적이며 ‘환원 불가능한’ 역사적 시간들이 ‘지금 그리고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 그리고 같이’ 존재하는 역사들은 근대의 서사와 권력 관계에 편입되지 않는 역사

◆ 07-9평 57~60번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사 연구에서 임진왜란만큼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연구 주제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향적이었다. 즉,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만 제시되면서, 그 이면의 다양한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의병의 봉기 원인은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의병이 봉기한 이유를 주로 유교 이념에서 비롯된 ‘임금에 대한 충성’의 측면에서 해석해 왔다. ㉠ 실제로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의병장이 띄운 격문(檄文)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일면 타당하다. 의병장은 거의가 전직 관료나 유생 등 유교 이념을 깊이 체득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이 의병에 가담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임진왜란을 당했던 데다가, ㉡ 전쟁 중에 보였던 조정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당시 조선 왕조에 대한 민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오로지 임금에 충성하기 위해서 의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득찬 ㉢ 한자투성이 격문의 내용을 백성들이 얼마나 읽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의병의 주축을 이룬 백성들의 참여 동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의병들은 서로가 혈연(血緣) 혹은 지연(地緣)에 의해 연결된 사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켜야 할 공동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결속력도 높았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임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으며,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백성들이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의병에 참여했던 까닭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관군과는 달리 의병은 비교적 지역 방위에만 충실하였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는 의병의 활동 범위가 고을 단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의병들 사이의 연합 작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병장의 참여 동기도 단순히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는 명분적인 측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의병장들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갖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그러한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 의병장들이 지역적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유교적 명분론과 결합하면서 의병을 일으키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관군의 잇단 패배로 의병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 조정에서는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의병의 적극적인 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관료가 되어야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관직 임명은 의병장들에게 큰 매력이 되었다.

57.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1점]

- ① 의병의 참여 동기 ② 의병장의 이념적 기반
- ③ 의병장과 조정의 관계 ④ 의병의 전투 활동 실태
- ⑤ 의병 활동의 공간적 범위

58. ㉠~㉤ 중, <보기>의 역사 자료 ㄱ과 ㄴ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 기>—

ㄱ. 왜적이 대동강변에 나타나자 조정의 대신들은 피난을 떠나기 위해 먼저 평양성을 나섰다. 이에 성안의 아전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칼을 빼어 들고 그 길을 막으면서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너희들은 평소에 나라의 녹봉만 훔쳐 먹다가 이제 와서는 나라일을 그르치고 백성들을 속임이 이와 같으냐?”

ㄴ. “진실로 기운을 내고 펼쳐 일어나, 우리 조상 임금님들께서 남기신 은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창고에 가득한 물건과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는 아름다운 칭송이 있을 것이고, 자손에게까지 은택이 흘러 전해질 것이니, 어찌 홀륭하지 않으랴!”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59. [A]의 내용에 근거하여 의병에 참여한 일반 백성의 심경을 추론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관군에 들어가느니 의병이 낫고말고.
- ② 조정의 명이 있으니 기꺼이 동참해야지.
- ③ 사랑하는 처자식은 내 손으로 지켜야지.
- ④ 내 고장에 왜놈들을 들여놓을 수야 있나.
- ⑤ 친구도 많고 친척도 있으니 싸울 힘이 나는군.

60. ㉠의 접미사 ‘-투성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1점]

- ① 사냥-꾼 ② 동갑-내기 ③ 대장-장이
- ④ 벼슬-아치 ⑤ 잠-꾸러기

◆ 15 수능 B형 17~20번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

으로 ㉔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㉕ 과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㉖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7. 밑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18. 밑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19.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20. ㉑~㉔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 ② ㉒: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 ③ ㉓: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④ ㉔: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 ⑤ ㉕: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 16 LEET 언어이해 4~6번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족의 성쇠는 매양 그 사상이 지향하는 바에 달린 것이며 사상이 지향하는 바의 흑 좌, 흑 우는 매양 모종 사건의 영향을 입는 것이다. 그러면 조선 근세에 종교나 학술이나 정치나 풍속이 사대주의의 노예가 됨이 무슨 사건에 원인함인가? 나는 일언으로 대답하여 가로되 고려 인종 13년 서경(西京)의 전역(戰役), 즉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함이 그 원인이라 한다.

서경 전역을 역대의 사가(史家)들이 다만 국왕의 군대가 반적(反賊)을 친 전역으로 알았을 뿐이었으나 이는 근시안의 관찰이다. 그 실상은 이 전역이 즉 낭가(郎家)·불가(佛家) 대 유가(儒家)의 싸움이며, 국풍파(國風派) 대 한학파(漢學派)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역에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 즉 유교사상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만일 이와 반대로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 등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 이 전역을 어찌 ‘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 하지 않으랴?

인종이 즉위하매 낭가와 불가와 기타 무장과 시인(詩人)의 무리가 분기하여 황제를 칭하고 북쪽으로 금나라를 정벌하기를 강

경히 주장함에 이르렀다. 칭제북벌론의 영수는 첫째 윤언이니, 윤언이는 곧 윤관의 아들로 유일한 낭가의 계통이라 본 논(論)의 영수됨이 필연코 당연한 일이며, 둘째 묘청이니, 묘청은 서경승도(僧徒)로 도참(圖讖)의 설을 유포하여 서경에 천도하고 제호(帝號)를 칭한 후 북으로 금을 치자는 자이며, 셋째 정지상이니, 정지상은 당시에 이름을 떨치던 시인이요 강도의 확대를 몽상하던 인물이다. 이 삼인이 칭제북벌에 대한 의견은 동일하나, 다만 묘청과 정지상은 서경 천도까지를 주장하였고, 윤언이는 거기 부동의하던 바이다.

『고려사』에 묘청을 요적(妖賊)이라 하였다. 이는 묘청이 음양가의 풍수설로 평양 천도를 앞장서 주장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대개 신라 말엽부터 평양 임원역은 대화(大華)의 세라 여기에 천도하면 36국이 와서 조공을 바치리라는 비결이 유행하였다. 평양을 도읍으로 삼음은 역대 왕조에서 기도하던 바이나 기실은 평양에 천도하면 북쪽 오랑캐에 가까워지니 만일 적기(敵騎)가 압록강을 건너는 때에는 도성이 먼저 병화의 요충(要衝)이 되므로 실로 당시 도성될 지점에 결코 마땅치 않거늘, 칭제북벌론자가 매양 평양 천도를 전제로 함은 비상한 실책이니 윤언이가 전자를 주장하고 후자에 부동의함은 과연 탁견이라 이를 것이다. 그러나 비결과 풍수설로 평양 천도를 주장함은 묘청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묘청을 요적이라 함은 너무 억울한 판결이다.

당시 칭제북벌론에 경향(傾向)한 자가 거의 전국인의 반이 지나며 군주 인종도 10의 9분은 묘청을 믿었다. 이같이 성숙한 시기를 선용치 못하고 서경에서 거병하여 국호를 대위라 하고 연호를 천개라 하고 인종에게 서경으로 천도하여 그 국호와 연호를 받기를 요구하니, 그 시대 신하의 예로 그 얼마나 발호(跋扈)한 행동인가? 이같이 발호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내부가 공고하고 실력이 옹후한 뒤에 발표할 것이 아닌가? 인종이 비록 나약하나 어찌 대위국 황제의 허명을 탐하여 서경으로 옮겨 이어(移御)하였을 것인가? 윤언이가 비록 묘청의 칭제북벌론에 동의하던 일이나, 어찌 이같이 광망한 거동에야 일치할 수 있을 것인가? 윤언이는 고사하고 묘청의 친당들도 거병의 소식이 처음 송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사실이 차차 분명하여 오매 칭제북벌론자는 모두 와해되고, 반대자 등이 작약하여 김부식이 원수로 묘청 토벌의 길에 오르며 정지상 등은 출병 전에 김부식에게 피살되고, 윤언이는 김부식의 막하가 되어 묘청 토벌자의 일인이 되게 되었다.

묘청이 불교도로서 낭가의 이상을 실현하려다가 패망하고 드디어 사대주의파의 천하가 되어 낭가의 윤언이 등은 겨우 유가의 압박 하에서 그 잔명을 구차히 보존하게 되고, 그 뒤에 몽고의 난을 지나매 더욱 유가의 사대주의가 득세하게 되고, 조선은 창업이 곧 이 주의로 성취되매 낭가는 아주 멸망하여 버렸다. 정치가 이렇게 되매, 종교나 학술이나 기타가 모두 사대주의의 노예가 되어 비록 갑오·을미개혁의 시기를 만날지라도 진흥대왕과 같은 경세가 일어나지 않고 외세를 따라 바뀌는 사회가 될 뿐이니, 아아 서경 전역의 지은 원인을 어찌 중대하다 아니하라.

- 신채호, 「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에서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묘청이 거병하자 송도의 칭제북벌론자들도 호응해 봉기하였다.
- ② 갑오·을미개혁은 자주적인 근대화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 ③ 조선 왕조는 건국부터 유교사상에 의한 사대주의로 일관하였다.
- ④ 묘청 이전에도 평양에 천도하면 국운이 흥성한다는 비결이 퍼져 있었다.
- ⑤ 묘청의 거병 당시 칭제북벌에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5. 각 인물들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묘청이 서경에서 군사를 일으킨 것은 성급한 행동이었다.
- ② 윤언이가 서경 천도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탁월한 판단이었다.
- ③ 정지상이 칭제북벌을 꿈꾼 것은 당대 상황을 오판한 결과였다.
- ④ 묘청이 국호와 연호를 세운 것은 신하로서 잘못된 행동이었다.
- ⑤ 풍수설로 서경 천도를 주장했다고 해서 묘청을 요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다.

6. ㉠과 같이 주장한 핵심적인 이유는?

- ① 낭가와 불가가 힘을 합쳐 보수적인 유교사상에 대한 저항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 ② 북진 정책이 좌절되어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③ 서경 천도의 실패로 음양가의 풍수설이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 ④ 낭가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상이 소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 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칭제하고 연호를 세운 사건이기 때문이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한 역사가이자 묘청의 난을 진압한 정치인이었다. 그에 대한 후세 사람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합리적 사고를 가진 유학자로 중세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린 인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체제 유지와 기득권 수호에만 급급했던 사대주의자’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동안 김부식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대주의와 관련된 문제였다. 그를 ‘진취적인 고유 사상을 말할한 흉악한 사대주의자’로 규정하면서, 그가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것이 이후 사대주의에 찌든 조선의 온갖 병폐를 가져온 근원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삼국사기』의 내용과 체재를 분석하여 여러 측면에서 대부분의 조선 시대 역사서에 비해서는 덜 사대적이라고 하면서, 김부식에게 씌워진 사대주의자의 굴레를 일정 부분 벗겨 내려고 시도한 학자도 있다. 그러면 사대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본디 사대란 힘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하위 국가로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전쟁과 같은 국가 사이의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호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김부식이 활동하던 1120년대는 금(金)의 압박이 가중되던 때였다. 금은 1125년에 요(遼)를 완전히 멸망시켰으며, 그 여세를 몰아 화북 지역에 진출해 송(宋)을 군사적으로 크게 압박했다.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금의 위세를 보고 고려의 지배층이 긴장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듬해 금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고려 조정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났고, 김부식 역시 당시 상황에서 사대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중 하나였다. 이는 훗날 병자호란 직전 청(淸)이 조선에 똑같은 요구를 하자 명(明)만을 사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많은 신료들이 화이론(華夷論)의 명분을 내세워 거부를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김부식에 대한 평가에서 또 하나의 논점이 된 것은 『삼국사기』에 담긴 그의 사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배제하고 ㉠ 선악의 포폄을 중시하는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사기』를 서술함으로써 이전의 ㉡ 신이적(神異的)인 고대 사학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 중국 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용인하기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존 사료에 담긴 고대적 성격을 말할할 목적으로 『삼국사기』를 새로 편찬하여 ㉣ 고유 사상에 바탕을 둔 고대 문화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양립해 있다. 이 문제는 고유 사상과 유교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자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김부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그의 과거 왕조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 『삼국사기』를 통해 볼 때 그는 ㉤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의 역사를 인식하였다. 『삼국사기』의 서술 순서에서부터 신라의 우위를 부각하였고, 신라 본기의 말미에 붙인 사론에서도 고려 왕실이 신라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음을 강조하여 신라 계승 의식을 분명히 했다. 그가 고조선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지만, 고조선은 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삼국은 애초부터 서로 다른 세 개의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 원래 하나의 나라에서 세 나라가 배태되었다는 인

식은 그에게 없었다. 결국 김부식은 삼국의 분립을 전제로 한 신라 계승 의식에 매몰된 채 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적 역사 인식의 단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38. 글쓴이의 견해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김부식은 화이론을 내건 사대주의자였다.
- ② 김부식의 유교 사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
- ③ 사대의 문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 ④ 김부식의 신라 계승 의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⑤ 사료의 고대적 성격을 말살하려고 『삼국사기』를 편찬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39. 김부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 부정적 평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김부식의 사대관을 조선 유학자들의 사대관과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ㄴ. 사대의 정도가 더 심한 사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상대적 우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ㄷ. 고유 사상은 좋은 것으로, 외래 사상은 나쁜 것으로 보고 양자를 대립적 관계로만 파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 ㄹ. 김부식이 사대를 택한 진정한 이유가 기득권의 수호였음을 간과한 채 사대가 불가피했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0. ㉠~㉣ 중 <보기>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보 기>—

신라에서 사용한 왕호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이 있다. 신라 말기에 최치원이 지은 역사서인 『제왕연대력』에는 모두 '아무개왕[某王]'이라고 하고 거서간 등은 쓰지 않았으니, 이는 아마 그 말들이 비야(鄙野)하여 죽히 일컬을 만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서』를 보면, 중국의 사서인데도 오히려 흉노의 말 '탱리고도'를 그대로 보존해 남겼다. 그러므로 지금 신라의 일을 기록함에 있어, 신라 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역시 마땅할 것이다.

-『삼국사기』 권4, 신라 본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기 2세기 중엽, 로마의 속주 출신 그리스인 아리스티데스는 로마 통치의 특징을 묘사하는 「로마 송사(頌辭)」라는 연설문을 남긴다. 이 글은 로마 제국에 대한 동시대인의 증언이자, 정복자가 아닌 속주, 즉 식민지 지식인의 논평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렇지만 로마의 통치 원리에 대한 그의 설명은 정작 로마인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그는 ‘보편 시민’을 구현하려는 시민권 정책의 개방성 원리를 칭찬하지만, 로마인은 그 정책 배후의 이념을 숙고하지 않았다. 로마인에게 속주 엘리트들에 대한 시민권 개방은 분리 통치를 위한 ‘지배 비결’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아리스티데스는 로마의 정책을 이념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었다. 이미 300여 년간 그리스 지식인들은 로마 권력의 속성과 그리스인이 로마 통치에 관해 취할 태도에 대한 담론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우선 로마의 지배에 들어간 기원전 2세기 중엽 이래 그리스 지식인들은 그리스인의 대처 자세에 대해 고민했다. 가장 먼저 이를 논의한 이들은 기원전 2~1세기의 철학자 파나이티오스와 포세이도니오스였다. 그들의 논리는 최선자(最善者)의 지배가 약자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었다. 그로써 그리스인은 로마인에 대해 지배의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 순응주의를 드러냈다. 하지만 과연 로마인은 최선자였던가? 속주에 배치된 군 지휘관과 관리들에 대한 속주민의 고발이 잦았던 당시 현실에서 보면 그 대답은 어렵지 않다.

한편 서기 1세기 초 로마의 정체(政體)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뀐 뒤, 그때까지 통치하기보다는 그저 점령해 온 지역에서 실질적 행정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로마의 통치가 공고해지고, 로마가 가져온 평화의 혜택이 자명해졌다. 그리스 문화를 존중하는 로마 황제들의 배려가 늘어가면서, 그리스인의 자유 상실감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제 그들은 문학과 철학에서의 문화 권력을 인정받는 대가로 권력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를 ㉡ 타협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서기 1세기 초의 역사가 디오니시우스는 실체적 근거도 없이 로마인의 뿌리는 사실 그리스인이라며 일종의 동조론(同祖論)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이는 로마인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그리스인을 위한 타협의 신호였다. 정복자로 성공한 로마인을 불편하게 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거의 같은 시기의 수사학자 디오는 황제들이 타락하지 않으면, 로마가 관대한 통치를 펴고 그리스인의 이상인 ‘화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티데스의 시기에 이르면 속주 지식인들의 기조는 ㉢ 동화주의로 변했다. 역사가 아피아누스는 제정이 안정과 평화, 풍요를 안겨 주었다고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전환된 것을 축복이라고 묘사했다. 이는 그가 아직도 옛 정체에 대한 향수를 질게 간직하고 있던 로마의 전통적 지배 계층보다 새로운 체제와 일체감을 더 지녔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아리스티데스는 「로마 송사」에서 그리스에 대한 혜택과 배려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제국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제국 통치가 가져다 준 평화의 전망 속에서 그리스의 지역

엘리트들은 더 이상 통치할 권리를 두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한다. 요컨대 아리스티데스는 식민지 엘리트들의 탈정치화를 상정하고 있다. 그는 모든 속주 도시의 정치적 자립성이 세계 제국 안에서 소멸되는 상태를 꿈꾸는 것이다.

게다가 그가 보기에 로마는 이전의 다른 제국인 페르시아에 비해 행정 조직과 지배 이념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지녔다. 로마의 행정 조직은 거대하지만 동시에 체계적인 점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 체계적인 면이란 곧 통치의 탈인격성을 가리키며, 바로 페르시아 왕의 전횡과 대척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 송사」는 ‘팍스 로마나’가 절정에 달해 있던 서기 2세기 중엽의 로마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동조하며 결국 동화되었던 그리스 지식인들의 자세를 잘 보여 주고 있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공화정 말기에 로마의 속주 행정은 페르시아와 달리 전횡성을 극복하였다.
- ② 공화정 말기에 속주민은 로마 군 지휘관과 관리들의 통치에 이견을 표하지 못했다.
- ③ 제정 초기에 로마의 상류층은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체제의 변화를 환영하였다.
- ④ 제정 초기에 그리스 지식인들은 로마의 그리스 문화 존중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지켰다.
- ⑤ ‘팍스 로마나’ 절정기의 시민권 정책은 ‘보편 시민’ 양성이라는 통치 원리의 산물이었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지배의 정당성을 윤리적 정당성과 일치시키는 논리를 내세웠다.
- ② ㉡에서는 그리스 정체성의 유지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③ ㉢에서는 제국 행정 시스템의 체계적인 면을 높이 평가했다.
- ④ ㉠과 ㉢에서는 자유보다 평화와 안전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 ⑤ ㉠, ㉡, ㉢ 모두 로마의 정체 변화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정치가는 자신과 출신 도시가 로마 통치자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로마의 고위 인사 중에 친구를 가지도록 해야만 한다. 로마인은 친구들의 정치적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데 열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물들과의 우정에서 이득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이점이 우리 도시의 복지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좋다. …… 우리 그리스 도시들이 누리는 축복들인 평화, 번영, 풍요, 늘어난 인구, 질서, 화합을 생각해 보라. 그리스인이 이민족들과 싸우던 모든 전쟁은 자취를 감추었다. 자유에 관한 한, 우리 도시 주민들은 통치자들이 허용해 주는 커다란 몫을 누리 고 있다. 아마 그 이상의 자유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이다.

- 플루타르코스, 「정치가 지방생을 위한 권고」

- ① ‘우리 도시’와 ‘화합’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인의 정체성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은 디오와 같은 자세를 견지한다고 보아야겠군.
- ② ‘자신과 출신 도시’, ‘평화’와 ‘풍요’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제의 통치를 환영한 아피아누스와 동시대인의 주장이라고 보아야겠군.
- ③ 로마는 ‘친구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켜 준다고 한다는 점에서, 시민권 확대에 주목한 아리스티데스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겠군.
- ④ 그리스인이 ‘이민족들’과 싸우던 전쟁이 사라졌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로마인과 그리스인이 한 뿌리를 가졌다고 보는 디오니시우스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보아야겠군.
- ⑤ ‘통치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준 ‘번영’과 ‘질서’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약자에게 유익한 점을 고민한 파나이티오스, 포세이도니오스와 동시대인의 견해라고 보아야겠군.

◆ 07 MDEET 언어추론 28~31번

[28~3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독일 역사학계에서 일상사(日常史) 연구는 사회사(社會史)에 대한 비판으로 1970년대 말에 등장하였다. ㉠ 위르겐 코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사 연구는 근대화 이론과 비판 이론을 바탕으로 민족 국가, 산업화, 계급 사회 등 거대 담론을 도입하여 근대 사회의 구조와 과정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에 일상사가들은 근대화가 초래한 희생과 부담에 주목하여 익명의 구조와 과정보다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경험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들은 역사의 주체와 해방자로서 서민들의 생활과 행동 양식에 대한 연구를 주창했다. 그 후 일상사 연구는 점차 그 연구 대상과 관점을 다양화하며 풍부한 연구 영역을 개척해 왔다.

오늘날 일상사적 역사 이해 및 서술과 관련하여 '종속'의 관점과 '자율'의 관점이라는 두 관점이 있다. ㉡ 카린 하우젠은 사례 연구를 통해 근대 이래 대중들의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구조에 종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1960년 무렵 대도시 근교의 고층 건물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복잡한 기술적 시설과 장치들'의 정상적 작동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은 복잡한 집합체 안에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형성하며 해석한다. 본질적인, 어쩌면 실제로 결정적인 조치는 ㉢ '등 뒤'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전체주의적 지배가 대중의 일상을 철저히 종속시켰던 나치 시대에 관한 여러 일상사가들의 연구 결과도 하우젠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철저한 조직화와 빈틈없는 통제, 게르만 종족 공동체 이상과 반(反)유대주의의 결합, 그리고 이미지를 통한 대중 동원은 '사생활(私生活)의 정치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군이 점령했던 폴란드 지역에서 전개된 유대인 학살의 일상을 치밀하게 추적한 결과, 이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다. 학살 작전에 관련되었던 관료 조직, 방위군, 나치 친위대와 평범한 독일인들로 구성된 경찰 특수 기동대 등이 보인 참여도와 동기는 기관뿐 아니라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도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들은 '몰살 정책'을 언제나 충실히 따른 것도 아니었으며, 잦은 과잉 학살에서 보듯이 '합리적인' 세부 지침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조차 있었다. 여러 일상사 연구에 의해 밝혀진 자발적 밀고, 폭력에 대한 방관, 혹은 노골적 약탈과 같이 통제되지 않은 폭력 등 많은 평범한 독일인들이 나치 체제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한 사실 또한 브라우닝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함의를 지닌다. 게다가 어떠한 저항 행위도 용납되지 않았던 극단적 폭압 체제에서도 대중들의 일탈적 행위, 정치에 대한 무관심, 사적 영역에의 몰입, 노골적 불복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저항 행위들은 발견되었다. ㉤ 데틀레프 포이케르트는 이러한 현상들을 '정치의 사생활화'로 명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 나타나는 종속 구조와 자율 행동 사이의 경계는 그리 명료하지 않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구조와 일상적 실천을 명확하게 가르는 인습적인 양분법은 문제를 드러

내고 만다. '사생활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생활화'는 동시적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 반 라크가 예시했듯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행위들은 체제와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때로는 스스로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일상사 연구는 이러한 역관계(力關係)의 동시성과 긴장을 읽어냄으로써 근대 사회 구조와 지배의 성격을 새롭게 해명하려는 기획이기도 하다. 나아가 구조와 지배의 틀 속에서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된 주체를 해체함으로써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역사화하고, 이를 통해 거대 역사 담론에 의해 짓눌리고 가려진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와 가능성을 가시화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동시대인과 행위자 자신은 물론, 훗날 자취와 흔적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일상성 속의 다양한 층위와 복잡성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행위자가 구조에 동조하거나 따를 때에도, 반대로 억압되거나 강제될 때에도, 그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미세한 차이를 표현하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는 일상에 나타나는 구체적 행위를 묘사하는 언어들이 암시하는 것보다 언제나 커 보인다. 일상성에 관한 논의 결과는 '주어진 것'과 '스스로 만든 것'의 배합 비율에 기술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일상사 서술의 풍부한 가능성이 있다.

28.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 ㉠ 사회사는 일상 세계의 심층 구조를 해체한 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 ㉡ 소시민의 일상 세계는 다층적 일상성의 유형을 법칙화함으로써 역사화된다.
- ㉢ 근대 국가 권력이 일상 세계의 미세한 영역에까지 미쳐서 자율 영역은 점차 사라진다.
- ㉣ 소외되었던 서민들의 일상을 계층적으로 역사화하면 근대 사회 구조가 새롭게 규명된다.
- ㉤ 일상의 세밀한 묘사를 통해 거대 담론이 왜곡한 노동자들의 다중적 정체성이 회복된다.

29. ㉠ '등 뒤'의 함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감지할 수 없는 구속성
- ② 검증할 수 없는 인과성
- ③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
- ④ 저항할 수 없는 절대성
- ⑤ 회피할 수 없는 숙명성

30. '사생활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생활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생활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생활화'의 집적을 통해 실현된다.
- ② '사생활의 정치화'는 체제 비판적이고, '정치의 사생활화'는 체제 순응적이다.
- ③ '사생활의 정치화'란 개개인이 자신의 일상 영역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현상을 말한다.
- ④ '정치의 사생활화'란 일상 행위 일반에서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을 이른다.
- ⑤ '사생활의 정치화'를 통해 일상 세계의 전면적인 식민화가 이루어진다.

31. 나치 시대에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 ㉡~㉤이 제시한 해석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코카: 나치 시대 말기, 군수 공장에서 나타난 근무 태만과 불량품 증가는 노동자의 도덕관념이 해이해진 데에서 비롯하였다.
- ② ㉢ 하우젠: 유대인 '몰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과잉 학살 사례들은 '합리적' 집행 계획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 ③ ㉣ 브라우닝: 민간인의 폭력이 통제되지 않고 증가한 것은 나치 체제의 결함 때문이었다.
- ④ ㉤ 포이케르트: 지하 서클, 재즈 클럽과 같은 청소년 하위문화는 나치 체제에 대한 저항의 한 표현이었다.
- ⑤ ㉥ 라크: 평범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에 가한 잔학 행위는 전체 주의 지배 구조가 조장한 반유대주의의 결과였다.

◆ 15 LEET 언어이해 21~23번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된다. 아우슈비츠에서도 일상은 있었다. 수감자들은 적어도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 선택의 폭은 상당히 다양했다. 그곳에서도 인간은 행위 주체였던 것이다. 그들은 극한 상황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경험했고, 전유했으며, 행동에 옮겼다. 따라서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아우슈비츠의 일상’은 존재했으며, ‘아우슈비츠의 일상사(日常史)’ 또한 가능하다. 대체로 역사 서술의 주 대상은 사회 전체나 개인을 움직이는 구조와 힘이지만, 일상사의 관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어떤 역사적 구체(具體)를 생산하고 변형하는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는 ‘극한 상황 속의 일상’, 즉 ‘비상한 일상’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공격당하며 무너지고 파멸로 치달아 가는 인간성을, 또 어떻게 인간성이 살아남고 소생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레비는 ‘회색 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비상한 일상’ 속의 삶의 양태를 제대로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한 삶의 방식은 포기와 순응이었다. 그들 중 살아남은 이는 극소수였다. 그는 이들을 ‘끊임없이 교체되면서도 늘 똑같은, 침묵 속에 행진하고 힘들게 노동하는 익명의 군중/비인간’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누구인가? 먼저 친위대의 선택을 받아 권한을 얻어 ‘특권층’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 ‘특권층’은 수감자 중 소수였지만,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여 주었다. 기본적으로 배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식이 더 필요했고, 이를 위해 크든 작든 ‘특권’을 얻어야 했다. 그리고 특권은 그 정의상 특권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예를 들어 막 도착한 ‘신참’을 기다리는 것은 동료의 위로가 아니라, ‘특권층’의 고함과 욕설, 그리고 주먹이었다. 그는 ‘신참’을 길들이려 하고, 자신은 잃었지만 상대는 아직 간직하고 있을 존엄의 불씨를 꺼뜨리고자 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다. ‘특권층’이 아니면서도 생존 본능에 의지한 채 ‘정글’에 적응했던 사람들이다. 체면과 양심을 돌보지 않은 그들의 삶은 만인에 맞선 단독자의 고통스럽고 힘든 투쟁을 함축했고, 따라서 도덕률에 대한 적지 않은 이탈과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회색 지대’는 가해자와 희생자, 주인과 노예가 갈라지면서도 모이는 곳, 우리의 판단을 그 자체로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다. 그리하여 ‘회색 지대’는 이분법적 사고 경향에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호성이 ‘회색 지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호성의 원천은 다양하다. 먼저 악과 무고함이 뒤섞여 있다. 수감자들은 기본적으로 무고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 ‘회색인’의 행위는 무고하면서 무고하지 않다는 역설은 여기서 성립한다. 물론 그가 행하는 악과 나치가 행하는 악은 분명 차원이 다르다. 또 다른 원천은 행위자의 동기에 있다. 예컨대 구역장은 ‘특권층’으로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겉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실은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소수는 이 권한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저항 조직을 위해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색 지대'를 만들었는가? 첫째, 나치는 인력의 부족 때문에 피억압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 협력자들은 한 때 적이었으므로, 이들을 장악하는 최선의 길은 그들을 더럽혀 공모의 유대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억압이 거셀수록 그만큼 피억압자 사이에서 기꺼이 협력하려는 경향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엄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로 '회색인'이 된다. 그런데 '회색 지대'의 이런 모호성은 심각한 혼란과 곡해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가해자와 희생자가 뒤바뀌고 또 뒤섞이는 상황을 보며, 누구에게도 책임의 소재를 묻기 어렵다고 강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레비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다른 것이다. 그는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한다. 가해자인 나치는 악하며 피해자인 수감자는 무고하다는 단순한 이분법은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그저 수동적인 것으로, 통념이 된 화석으로만 만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답변을 얻기 어려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되묻고 통념을 토대에서부터 문제시하는 데 있다. '괴물'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얼굴을 돌리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1.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아우슈비츠에서 '신참'에 대한 가혹 행위는 상황에 적응하게 하려는 위악적 행동이었다.
- ② 아우슈비츠 수감자 중 일부는 일정한 특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저항 운동을 하였다.
- ③ 생환자 중 일부는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도 감수하였다.
- ④ 생존 투쟁을 포기한 사람들은 침묵하는 익명의 군중이 되어 거의 다 사망하였다.
- ⑤ 아우슈비츠 수감자 중 일부는 무고한 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하였다.

22. '회색 지대' 개념이 가지는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여 인간 존재와 본성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 ②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심리를 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한다.
- ③ 피해자들 간에 공모의 유대가 있음을 드러내어 역사적 진실을 규명한다.
- ④ 역사적 구체들을 분석하고 정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다.
- ⑤ 이분법적 분류를 넘어서게 하여 적극적 협력자에 대한 능동적 단죄를 요청한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레비의 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레비의 글은 아우슈비츠 문제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의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이 거부되었다.
- 레비의 글을 읽은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당신은 독일인들을 용서했나요?”였다.
- 아우슈비츠 생존자 중 하나인 비젤은 레비의 글에 대해 “레비는 생존자들에게 너무 많은 죄의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 ① 수용소 단위에서의 가혹 행위에만 집중함으로써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 ② 극한 상황에서의 일상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일상사가 갖는 본연의 의미를 왜곡한다.
- ③ 다층적 차원에서 수감자들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유보하게 한다.
- ④ 피해자들 내부의 관계에만 주목하게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부차적 문제로 만든다.
- ⑤ 관리자와 수감자의 관계로만 접근하여 유대인에 대한 유럽의 민족 감정 문제를 외면하게 한다.

◆ 14-6평 A형 26~27번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 및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전개된 제한적 대결 상태를 냉전이라고 한다.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냉전이 시작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이는 단순히 냉전의 발발 시기와 이유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그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그 연구의 결과를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 전통주의는 냉전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소련은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동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봉쇄 정책을 추구하는 와중에 냉전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의 봉쇄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결과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비판을 가한 ㉡ 수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냉전의 책임이 미국 쪽에 있고, 미국의 정책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은 전후 세계를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쟁 중에 급증한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을 얻기 위해 세계를 개방 경제 체제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므로 미국 정책 수립의 기저에 깔린 것은 이념이 아니라 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국력이 미약했으므로 적극적 팽창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수정주의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오히려 미국이 유럽에서 공격적인 정책을 수행했고, 소련은 이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냉전의 기원에 관한 또 다른 주장인 ㉢ 탈수정주의는 위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절충적 시도로서 냉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즉, 냉전은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경제를 중심으로만 냉전을 보아서는 안 되며 안보 문제 등도 같이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련의 목적은 주로 안보 면에서 제한적으로 추구되었는데, 미국은 소련의 행동에 과잉 반응했고,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냉전 책임론은 크게 후퇴하고 구체적인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충적 시각의 연구 성과는 일견 무난해 보이지만, 잠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지만, 중심적 경향성은 존재하고 이를 파악하여 설명하는 것이 역사 연구의 본령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주의에 따르면 소련의 팽창 정책은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수행된 것이었다.
- ② 수정주의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적 동기가 냉전을 만들어 낸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 ③ 수정주의에 따르면 미국의 봉쇄 정책은 소련의 공격적 팽창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
- ④ 탈수정주의 출현 이후 냉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연구보다 구체적 정책 연구가 강조되었다.
- ⑤ 탈수정주의는 절충적 성향을 가져 역사적 현상의 중심적 경향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27. <보기>의 (가)~(다)와 부합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이 시기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국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양국은 상대방의 조치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 대응 조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안보가 더 위태롭게 되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미국의 대응이 미약하거나 부재한 곳에서는 소련이 분쟁을 일으켰다. 따라서 미국이 좀 더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봉쇄 정책을 추구했다면, 동유럽이 소련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국은 세계 철강 총생산량의 54%, 소련은 12%를 차지했으며,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는 미국이 49%, 소련이 12%였다. 이런 예들은 국력 면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지녔다는 것을 알려 준다.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업 중심의 사회를 벗어나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고 있던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터너가 이끌었던 **혁신주의 역사학**이 대두했다. 혁신주의 역사학의 특징은 역사의 핵심을 갈등이라고 본 점에 있다. 예컨대, 야만과 문명이 공존하는 프런티어야말로 미국 발전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터너는 산업이 발달한 북부와 농업이 지배적인 남부 사이의 갈등을 강조했다. 혁신주의 역사가 베커는 미국혁명이 과세를 둘러싼 아메리카 식민지와 모국 간의 투쟁임과 동시에 상층 상인과 지주를 비롯한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식민지 유력자와 하층 수공업자 및 노동자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이중혁명론을 제시했다. 혁신주의 역사학은 헌법을 금융업자, 상인 등으로 구성된 동산소유집단과 채무에 시달리던 소농 출신의 부동산 소유집단 사이의 싸움에서 전자가 승리하면서 만들어진 비민주적 문서로 파악하였다. 혁신주의 역사학은 1940년대까지 미국 역사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독일의 인권 탄압과 공산주의의 팽창에 놀란 보수적 미국인들은 혁신주의 역사학이 비판했던 미국적 가치, 즉 사유재산의 신성시, 개인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냉전질서에서 미국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결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합의사학**이 등장했는데, 그것의 특징은 미국사를 합의와 연속성의 시각에서 이해했다는 점이다. 혁신주의 역사가는 보수적인 유산자들과 하층민 간의 극적인 투쟁으로 미국혁명을 파악했으나, 합의사학을 대변하는 호프스태터는 미국적 가치를 공동이념으로 삼은 미국인들은 사회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극소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사는 기본적으로 혁명으로 인한 단절이나 중단 없이 연속성을 보여주었다는 데 합의사학은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미국혁명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하츠가 미국에는 봉건적 과거가 없다는 토크빌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주장하듯이, 구세계의 봉건적 압제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굳이 혁명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비어드와 같은 혁신주의 역사가가 헌법의 제정을 계급적인 갈등으로 파악했다면, 합의사학은 헌법 제정이 중산층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데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합의사학은 제헌의회에 참가한 대표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그들의 합의를 강조한 셈이다. 부어스틴은 미국인의 관대함과 타협의 정신을 프런티어에서 찾기도 했다. 개혁 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통과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합의사학은 50~60년대 미국 사학계를 주도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베트남전쟁과 민권운동으로 대변되는 이념적 격동기를 맞이했다. 이 같은 현실은 합의사학이 제시했던 미국의 밝은 과거상과 현재상에 대해 회의심을 갖게 했다. 합의사학과는 달리, 하지만 혁신주의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갈등과 빈곤에 주목한 경향이 등장했는데, 이를 **신좌파 역사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선도한 역사가로는 외교사가 윌리엄스를 꼽을 수 있다. 합의사학은 정책 결정자들이 19세기 말엽 이후에는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다고 보면서 1898년 식민지를 둘러싼 미국-스페인 전쟁을 “거대한 일탈”이라고 규정

했다. 윌리엄스는 이런 해석을 비판하며 정치인들이 국내의 분열을 호도하기 위해 혹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문호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팽창정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워드 진과 같은 신좌파 역사가는 혁신주의 역사학에 동조하면서 역사학을 이데올로기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는 학문으로 보았다. 하지만 혁신주의 역사학과 달리 신좌파 역사학은 역사를 물질적인 조건이나 계급 갈등으로 환원시키지는 않았다. 미국혁명과 헌법에 대한 연구에서 다수의 신좌파 역사가들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사이의 갈등 이외에도 민중의 역사와 권력관계에 주목했다. 흑인들의 민권운동과 소수민족인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빈민들의 운동을 배경으로 태동했던 신좌파 역사학은 이러한 피지배집단이 혁명전쟁과 헌법 제정 과정에서 행한 능동적인 행위를 복원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19세기 후반 미국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었다.
- ② 19세기 말 국외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스페인과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 ③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부활시키고자 했다.
- ④ 베트남전쟁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이루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 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다양한 소수집단과 관련된 연구가 대두하였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터너는 부어스틴과 마찬가지로 프런티어가 미국 역사 발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 ② 베커는 하츠와 달리, 혁신주의적 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미국사의 원동력이라고 볼 것이다.
- ③ 호프스태터는 유력 세력이 혁명에서 승리함으로써 갈등이 극소화 되었다고 볼 것이다.
- ④ 윌리엄스는 19세기 말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행사를 예외적 현상으로 파악할 것이다.
- ⑤ 하워드 진은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분석범위를 넓히면서 역사학의 정치화를 경계했을 것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국이 시행한 인지세법 등에 맞서 1774년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제1차 대륙회의를 개최하면서 영국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되었다. 당시 식민지 뉴욕의 정치는 상층 상인과 지주들과 같은 유력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독립전쟁은 하층 수공업자와 노동자 출신의 급진주의자들이 정치의 장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 주었다. 독립전쟁은 1781년 뉴욕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패배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전쟁 이후 미국은 1787년 필라델피아에 모여 헌법의 제정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주정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연방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필라델피아 제헌의회에는 해밀턴, 매디슨 등 소위 연방주의자와 제퍼슨 등의 반연방주의자 간의 대립이 있었고, 현상적으로는 연방주의자들의 승리로 볼 만했다.

- ① 혁신주의 역사학자라면, 필라델피아 제헌의회는 새로운 헌법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이려 하겠군.
- ② 합의사학자라면, 제1차 대륙회의와 요크타운 전투에 대해 봉건적 체제를 타파하는 시민혁명에서 미국의 가치와 동질성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파악하겠군.
- ③ 합의사학자라면, 제퍼슨, 매디슨, 해밀턴 사이의 차이를 과장하지 않고, 헌법 제정에 대하여 연방주의자들의 승리라기보다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한 사건으로 보겠군.
- ④ 신좌파 역사학자라면, 독립전쟁 당시 하층민들의 급진주의적 정치에서 여성이 차지한 역할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하겠군.
- ⑤ 혁신주의 역사학자나 신좌파 역사학자라면, 독립혁명에서 식민지 뉴욕의 상층 부르주아지와 하층 수공업자들의 대립을 주요하게 취급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89년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동유럽사, 특히 폴란드의 역사 서술은 더 복잡해졌다. 예컨대 소련-폴란드 전쟁을 거론하지 않을 만큼 강했던, '사회주의 모국'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는 사라졌다. 미래보다 과거가 더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힘들다는 농담은 실로 그럴듯했다. 당시 동유럽의 '벨벳 혁명'은 가까운 과거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크게 바꾸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형제애'라는 공식적 기억의 장막이 걷히자, 개인사와 가족사의 형태로 사적 영역에 숨어 있던 기억들이 양지로 나왔다.

이 현상은 폴란드 연대 노조의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1980년부터 지하 출판되었던 역사서들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그 역사 해석은 다양했는데, 특히 전투적 반공주의 역사가들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사회주의가 외래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폴란드 공산당 특히 국제주의 분파를 소련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판 배반자라고 하여 주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 분파 지도부의 상당수가 유대계임을 감안하면, 전투적 반공주의가 반유대주의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입장과 1968년을 전후한 폴란드 공산당의 공식적 입장은 공통분모를 가진다. 당시 권력을 장악한 애국주의 분파 역시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모국'에 대한 공격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국제주의 분파와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은 반독일 감정을 키워 소련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해소하려 했다.

이 시기 ㉠ 공산당의 공식적 역사 서술과 ㉡ 전투적 반공주의 역사 서술을 엮는 끈이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였다면, 19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폴란드의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집단 심성은 희생자 의식이었다. 폴란드 낭만주의가 처음 내세운 '십자가에 못 박힌 민족'이라는 이미지는 폴란드인이 공유하는 역사 문화 코드였다. 그리고 이차 대전에서 독일의 침공에 의해 오백여만 명이 희생된 사실은 이 의식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 중 삼백여만 명이 유대계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코드가 본격적으로 흔들린 분기점은 2000년의 스톡홀름 선언이었다. 여기에 참여한 유럽 정상들은 홀로코스트 교육의 의무화에 합의했고, 이는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전제 조건이 되었다. 이 시기 동유럽에서 때늦은 홀로코스트 책임론이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와 유럽 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서구화를 추진했다. 정치적 서구화는 문화적 서구화를 낳고, 문화적 서구화는 역사학의 경우 전 유럽적 기억의 공간에 과거를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전통적인 역사 서술 단위인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 '트랜스내셔널 역사 서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트랜스내셔널 역사와 충돌하는 민족적, 국가적 기억은 재구성되거나 수정되어야 했다. 폴란드의 경우, 일방적으로 희생당했다는 의식이 재검토되어야 했다. 나치 점령 당시 폴란드인의 협력이나 방관, 유대인에 대한 공격 등은 어느 정도 자발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우슈비츠 등지에서의 유대인 희생은 공산 정권 시기에 비판적 자기 성찰의 계기는 고사하고 아예 '말소된 기억'이었다. 유대인의 비극을 강조

하다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구실이었고, 일부 서구 자본가들의 나치 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또 다른 구실이였다. 더구나 빨치산의 반파시즘 투쟁을 강조하는 데 홀로코스트 가담 혹은 방관 문제는 방해가 되는 주제였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1941년 같은 마을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폴란드 인 주민들이 학살했던 사건을 다룬 『이웃들』이 2000년에 출간되자, 민족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느낀 민족주의자들의 분노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학살의 주체가 나치 비밀경찰이었다거나, 생존자의 증언만으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민족주의에 입각한 반론들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독일 극우파들이 연합군의 독일 민간인 폭격 등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정당화할 때마다, 역설적으로 폴란드에서의 자기 성찰은 약화되었다. 상충하는 민족적 기억들이 적대적 갈등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로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해 주는 ‘민족주의의 적대적 공존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960년대 후반에 폴란드가 소련에 대한 반감을 반독일 감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은 ‘민족주의의 적대적 공존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② 1980년대에 나타난 폴란드의 다양한 역사 해석은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일원화되었다.
- ③ 1980년대 말의 벨벳 혁명을 계기로 폴란드 역사 서술에서는 소련과의 관계 재설정이 본격화되었다.
- ④ 1989년 이후에도 사회주의 중주국에 대한 폴란드의 신뢰 관계는 나토 가입 시기까지 이어졌다.
- ⑤ 2000년에 출간된 『이웃들』에 대한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의 반응은 전 유럽적 기억 공간으로의 기억 재배치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보여 준다.

5. **희생자 의식**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폴란드 인은 ‘희생자 의식’을 벗어나 비판적으로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 ② 전투적 반공주의 역사가들은 지하 출판한 역사서를 통해 ‘희생자 의식’을 전복하려 했다.
- ③ ‘희생자 의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나치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역사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이차 대전 시기의 폴란드 인의 희생 중 과반수가 유대계였다는 사실의 공표는 ‘희생자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 ⑤ 19세기와 20세기의 폴란드 인의 정서적 기저에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민족’이라는 ‘희생자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건들에 대한 ㉠~㉣의 서술 방향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 1943년 나치 점령 하에 있던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에서 나치에 저항하는 봉기가 일어났다.
- ㉡ 1979년 폴란드 출신 교황이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 자리에서 미사를 집전한 것을 계기로 1984년 가스 저장실 터의 끝자락에 세운 카르멜 수도원은 폴란드 국민의 자부심의 장소가 되었다.

- ① ㉠은 국제주의 분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아, 유대계 폴란드인이 ㉠에서 나치에 대한 투쟁을 선도했다고 서술했을 것이다.
- ② ㉡는 강제수용소 자리를 역사적 교육의 터로 온전히 활용해야 한다고 보아, ㉡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했을 것이다.
- ③ ㉢는 홀로코스트 교육에 필요하다고 보아, ㉠의 봉기 지역이 유대인 구역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했을 것이다.
- ④ ㉠과 ㉢는 모두 정치적인 이유에서 ㉠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여 서술하고, ㉡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논조로 서술했을 것이다.
- ⑤ ㉠, ㉡, ㉢는 모두 역사 서술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 ㉡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서술했을 것이다.